

# 도심속 '생태공원' 시민과 함께 만든다

### 완산구, 참여형 공원관리 시작 추진 등 환경정비 나서

전주시 완산구가 시민 스스로 공원을 가꾸는 공원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심 속 공원을 지속가능한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팔소매를 걷어 붙였다.

6일 완산구에 따르면 도심 속 공원을 사람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며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고,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공원관리 시책 추진, 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여름 맞이 분수대 관리, 안전한 어린이공원 환경 조성, 공원 내 풀 깎기 등 다양한 환경정비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용자가 곧 관리자'라는 공원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전

북은행 화산지점과 전북의식산업, 농업회사법인 한푸드(주), 농협 전주 완주시군지부 등 4개 업체와 '1사(社) 1공원 가꾸기 협약'을 체결하고, 완산공원 등 4개를 대상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또한, 완산구 61개 자생단체는 각각 담당구역을 지정해 50개 공원을 주기적으로 청소 및 관리하는 등 동네공원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사)대한노인회와 함께 공원 26개소에 대해 환경정비와 공원시설물 불편사항을 점검 및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완산구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 시설물 현장점검을 강화하

고, 유지보수 업체도 기존 3개 업체(편의시설, 운동시설, 공원)에서 늘 이시설이 추가된 4개 업체로 확대해 빠른 시일 내에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즐겁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 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는 등 깨끗한 공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또, 다가공원 주민센터에는 운동기구 등 주민편의시설이 확충되고, 문화대공원 화장실 바람막 설치, 서부공원 퍼즐러 보수 및 벤치 정비, 오목대공원 정만대 데크 교체 등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삼천동 그린공원 등 2곳에 공원 화장실을 설치하고, 강변공원과 만나공원, 화산공원, 서부공원, 33호 근린공원, 화산 등산로 등 7곳에는 펜스

와 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완산구는 매주 1회 분수대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매월 2회 이상 맑은물사업본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분수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어린이 공원 조성을 위해 매년 2회 모래뒤집기와 소독, 이물질 제거 등으로 모래를 정결히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외계소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해오고 있다. 백순기 완산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 공간인 공원을 스스로 관리하고 가꾸어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도록 공원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발전하는 공원을 만드는 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일반 공개 앞둔 예정인 서동생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 서동생가터 익산시는 백제 무왕 탄생지로 알려진 금마면 서고소리 소재 마흥지(연동제) 주변 서동생가터를 일반에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7월 중순부터 일반에 개방되는 서동생가터.

### 송천도서관, 찾아가는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전주시립 송천도서관은 오는 10일부터 '찾아가는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주지역 영·유아들에게 도서관과 친해지고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추진해온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을 평일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송천도서관은 현재 생후 6개월부터 48개월 사이의 영유아가 생활하는 전주지역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등 700여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대상 선정이 완료되면, 자원활동가와 아동실 담당자가 직접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그림책이 들어있는 책 꾸러미를 나눠 주고, 영유아를 위한 책 놀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이용자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라며 "도서관은 앞으로도 시민들 삶 속으로 뛰어들어 시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주보건소,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주의보

#### 85℃ 이상 가열처리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 당부

충남, 경기 등 일부지역에서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환자 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전주보건소가 해산물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최근 3년 전국 발생 평균 건수는 51.3명, 사망 21.6명으로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5~6월 경 첫 환자가 발생하여 8~9월에 집중 발생하고 해안과 내륙에 상관없이 전국 발생 분포를 보이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은 어패류는 5℃ 이하로 저온 보관 해야 하며, 85℃ 이상 가열처리 하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해야 한다.

또한,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하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환자, 장기이식 환자, 면역결핍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발병하면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 전주시,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전주시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일반인형 4개 종류(I형~IV형)와 장애인형으로 구분돼 있다.

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전북도와 전주시에서 25%를 지원해 농업인들은 나머지 25%만 부담하면 재해사망 혹은

상해 보장 및 입원비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만 15세~87세(일부상품의 경우 84세)의 전주시에 거주하는 전업 농업인이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주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해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인재용 기자

### 완산구, 다가교 방호 울타리 설치 완료

전주시 원도심과 중화산동을 잇는 다가교가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교량으로 탈바꿈했다.

6일 전주 완산구에 따르면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교량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다가교 방호 울타리 설치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근 학교 학생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가교에 국제안전기준에 맞는 차량 방호울타리가 설치되면서, 교통사고 발생 등을 원인으로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으로부터 인도를 이

용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방호울타리 설치로 교통사고 시 차량의 차로 이탈 등을 방지해 운전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산구는 다가교에 이어 앞으로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한벽교와 승안교, 완산교, 매곡교, 서신교, 새내교, 서천교, 도토리밭교 등 8개 교량에 대해서도 안전교부세 등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18년까지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 경찰, '기부금 강요' 정헌율 익산시장 입건

###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원 강요 기탁... 정시장은 혐의 부인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시장은 익산시 소속 A국장을 통해 골재채취업자 B씨(50)에게 장학금을 기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 익산시로부터 추

가 채취할 수 있는 토석채취면허가를 얻었다.

이후 B씨는 정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과정에서 정시장이 A국장을 통해 A씨에게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도록 강요했다는 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시장을 소환해 골재채취업자에게 장학금을 요구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과 소환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시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상민 기자

www.jjnh.co.kr

##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미나리

장미

호박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운,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전주농협농민회  
전주농협 Good 농산물

전주농협농민회  
전주농협 Good 농산물